

여수서 나프타 탱크로리 충돌 사고

3만4000리터 탱크로리와 50톤 크레인 충돌 ... 나프타 누출로 화재

여수산업단지에서 나프타(Naphtha) 탱크로리와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1월9일 오전 5시45분 경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모 화학공장 앞 삼거리에서 강모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와 최모씨가 운전하던 50톤 크레인이 충돌했다.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나프타 3만4000리터 가운데 일부가 새어나오면서 불이 났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

운전자들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탱크로리 운전자 강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교통이 일부 통제되면서 약 2시간 동안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9>